

순천체력인증센터 “효과적으로 운동하세요”

생애주기별 체력측정과 개인 체력 맞춤형 운동처방 “전문인력 운영 본 센터 통해 시민 건강향상에 도움”

순천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인 순천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개인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해 운동 상담과 처방을 해주는 국가공인 체력인증기관으로, 만 4세-6세의 유아와 만 11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남권에서는 7개의 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 중 순천체력인증센터는 유일하게 지자체인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순천체력인증센터는 2014년 3월 개소하여 체력 측정,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찾아가는 출장서비스 등 시민의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체력 측정은 생애주기별(유아기, 청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어르신기)로 측정 항목을 나누어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 개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 지난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1천여 명이 증가한 3,573명의 시민이 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순천시는 도내 최초로 2024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남 유일의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올해 완공될 순천어울림체육센터 내 위치할 예정이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장애유형별로 체력 측정 후 장애 특성에 적합한 체력증진 운동처방을 제공한다. 김미자 체육산업과장은 “새해를 맞아 건



강을 위해 운동을 다짐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의 체력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면 보다 효과적인 운동이 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이 운영하는 본 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체력인증센터는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3층에 위치하고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전예약을 통해 체력측정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센터 이용 문의는 ☎ 061-749-6448로 하면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수소차 구입보조금 ‘총 198대, 112억 원’ 지원 수소차 185대·수소버스 13대

광양시는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98대, 112억 원이다. 차종별로는 ▲수소승용차 185대, 대당 3,450만 원 ▲수소 고상버스 11대, 대당 3억 7천만 원 ▲수소 저상버스 2대, 대당 3억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수소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차종을 확인하고 수소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지역 내 법인·기업이며, 개인·법인·기업 동일하게 각 1대가 지 구입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 구입 보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양시 산업과(☎061-797-2831)로 문의하면 된다. 신오희 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내연기관차를 수소자동차로 전환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주민 참여형 ‘보성 나무 사랑의 날’ 운영 생활권 나무 퇴비 주기·전지·잡관목 제거 등 추진

보성군은 매년 3월, 10월 넷째 주 금요일을 ‘보성 나무 사랑의 날’로 지정해 주민 참여형 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성 나무 사랑의 날’은 주민생활권 및 공원 등에 식재한 수목과 보성600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등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나무 가꾸기 작업을 추진하는 날이다. 이날은 정원전문가 등 나무 관리 전문인력 총 97명을 마을별로 투입하며 전문가의 기술 지도하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퇴비 주기, 수형 조절,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잡관목 제거, 물 주

기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형 나무 가꾸기 사업 대상지는 오는 2월 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받는다. 보성군은 2월 23일부터 주민들에게 기초 작업 요령을 알려준 후 마을별 사업을 시작해 수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 나무 사랑의 날을 지정해 ‘주민 참여형 나무 가꾸기’ 사업과 ‘보성600’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군,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총력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겨울철 다방면의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고흥군은 2023년 12월 4일,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흥군은 고병원성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제 점검 및 상시 점검을 하면서 항체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장의 황체 양성물을 향상시켜 구제역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 돼지 축산농가의 외부인 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흥만 및 오리 농가 주변 도로와 농장 임구 소독 강화(살수차 활용, 1일 3회) ▲소규모 사육 농가 소독 약품 배부 및 농가 자체 소독 홍보 강화 ▲소규모 농가 방사사육 금지 및 자가소비 유도 권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종료 시까지 집중 소독 및 방역 실태 상시 점검 ▲시료 채취

자를 통한 차단방역 수칙 현장 교육 ▲오리 조기 출하 유도 및 의심축 신고 홍보 등 다방면의 방역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흥군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자체 방역 부족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 및 행정 명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며, 추가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 고흥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전남동부지역본부와 상생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여수시가 지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남동부지역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간담회는 정기명 시장과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 양 기관의 국장 등이 참석해 전남동부지역본부로 이전한 부서들과 여수시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수시는 전남동부지역본부에 ▲여수사건 사실조사를 위한 국·도비 예산지원 ▲(구)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 사업 지원 ▲울산산단 조기 개발 및 지방산단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양 기관은 이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요의를 진해 전남도와 여수시의 구체적 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전남동부지역본부가 개청 후 첫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와 여수시 간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두 기관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 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